

「2015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미래를 여는 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 제6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 심사평 총평
 The Whole Process of the 6r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장 윤 규 / 국민대 건축대학 교수
 Jang, Yoon-Gyoo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Kookmin University
 usdSPACE@hanmail.net

지금까지의 학교의 주제는 지역을 거점으로한 커뮤니티를 생성하거나, 도시재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인프라적 변화를 중요한 이슈로 제안되었다. 공공성의 역할과 연계되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시의 재편을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주제인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를 여는 학교>는 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목하여 외연적 접근의 해결책을 모색하던 기존의 방식을 대신하여, 학교 그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획득되는 내연적인 담론으로 회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라는 건축과 장소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의 학교를 재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려 하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학교의 변화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지금 한창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취학연령 아동의 감소의 문제, 구도심주거의 소멸에 의한 취학아동의 감소의 문제, 단일민족문화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의 문제,.... 등을 통해서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라는 장소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구조와 프로그램으로 생성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 또한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서 더욱 정보화시대가 됨으로서 세계화되고 미래적인 열린 구조의 스마트 교육환경을 요구 받는 것이다.

공모전의 주제인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를 여는 학교>는 학교 자체의 본질을 묻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보다 더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전형을 찾아내려는 의미가 있다. 학교의 구조, 공간구성, 기능구성, 프로그램, 학제, 운영방식 등의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서 건축

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기를 주문한다고 보겠다. 교실동, 강당동, 운동장의 기본적 콤플렉스로 구성된 기존의 학교 공간구조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제안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학제의 요구와 새로운 학생들의 사고와 행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의 건축적 구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프로토타입으로서의 학교가 요구 된다. 교실자체 유니트의 변화, 교실 클러스트를 조합하는 방식의 변화, 교실 클러스트와 체육, 예술, 문화 활동의 새로운 관계 공간, 야외 수업활동의 공간적 의미의 새로운 해석, 스마트 미래사회와 함께 고민해야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새로운 테크놀러지 공간, 인간정서를 회복하는 감성적 교육공간, 다문화 체험과 이해를 서로 공유하는 소통 학습 공간, 학내 폭력이 사라지는 안전하고 투명한 교육공간,.... 등 학교의 본질적인 화두로 다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공간의 연구는 단순히 학교공간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도시, 환경에 함께 연결고리를 만드는 열려진 학교를 함께 달성해낸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융합주체로 도시재생과 자연환경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교 자체의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지역을 치유하고 지역을 재편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서 거창한 도시적 재생보다는 학교 자체의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주제와 결과물을 완성해내기를 원했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과 학교를 거창한 도시적 요소로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형의 학교 개념과 열려진 지역사회와의 소통 현상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을 찾아내려 하였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대상작인 <시골버스>가 신고 온 약수리 초등학교, 에듀박스>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작은 박스의 혁신을 통해서 가장 큰 학교구조의 변화와 지역사회와 또다른 소통을 만들어낸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시골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을 학교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학교의 시설을 해체하여 마을 곳곳에 민들레 흩뿌려처럼 뿌려 놓았다는 작가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흩어져 있는 에듀박스는 기존의 교육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학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교육방식의 틀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본적인 학습 유니트인 에듀박스는 일상과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편됨으로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에듀박스들은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만들자 박스> <생각박스> <살피자 박스> <나누자 박스>와 같이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 해체된 에듀박스는 마을속에만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시골버스의 정류장과 연계된 특이한 소통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큰 사회적 건축이 된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최우수상 <School without classroom>은 학생수 감소에 의해 줄어들어야만 하는 도시 학교의 전형을 탐구한다. 기존의 비워진 교실을 도시에 스며들게 뿌려, 도시환경과 일체가 됨으로써 결국 교실이 없는 학교로 변화됨을 강조하고 있다. 뿌려진 교실 공간은 단순히 기존 학생들의 공간이 아니라, 노인과 학생, 지역주민이 서로 공간을 점유하고 서로 선생이 되고 서로 학생이 되는 유연한 학교 공간의 탄생을 제시한다. 특히 노인, 학생, 전업주부, 가족 등의 지역주민들의 일상이 스며드는 교실의 변용에 의해서 변화되는 일상으로 제시하는 점이 탁월하다. 노인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메디컬센터, 문화예술 배움 공간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노인이 선생님이 되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농사, 전통, 예절등을 가르치고 재배하고 반대로 학생과 주부는 노인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지역주민에게 운동, 요가,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다중적 양면성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우수상인 <오래된 미래,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은 기존 자연 언덕을 학교로

치환하고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의 학교를 제안한다.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기 개념을 적용하여 경계 없는 학교를 제안한다. 언덕 자체를 커뮤니티 조정 및 야외 교육 활동 공간으로 구성하여 교실에서 확장된 또다른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교 구조를 만들었다. 커뮤니티 조정은 마을 지역주민과 공유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며 열려진 공간을 생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학생들을 케어하고 함께하는 안전한 학습공간을 만들어 낸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우수상인 <A:TRIUM>은 학교 전체를 아트리움으로 둘러싸는 새로운 전형의 학교를 제시하는 과감한 시도로 주목받았다. 도시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공간을 내부 인공숲으로 치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제안한다. 테라스형으로 분절된 교실매스 전체를 아트리움으로 감싸서 인공자연환경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낸다. 아트리움속의 공간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외부학습의 쾌적성을 만들어내며 충분한 외부교육환경의 영역의 경계를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낸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우수상인 <Stitched S3, 하교길에 만나는 액티브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감성 학교>는 등하교길로 사용하는 골목길 자체를 학교시설로 보고 안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는 공간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경사지를 이용한 입체적인 길을 구성하고 길 주변의 빈집과 노후된 공간을 개선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방과후 공간과 같은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길의 공간을 구성하였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장려상인 <Growing School with Children, 부천 송일초등학교 리노베이션>은 초등학교의 기존시설의 복도를 확장시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과 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의 학교구조를 제안한다. 드라마공간, 휴게공간, 독서공간, 사색공간, 세미나공간, 자유공간, 전시공간으로 변용된 학교의 복도는 교실 학습의 한계를 보충하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 기본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장려상인 <Green Time 폭력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실 만들기>는 기존 학교의 단절된 공간구조를 공간분할과 입체적 흩뿌리기 등의 방식을 통해서 숨어있는 공간을 배제한 새로운 전형의 학교를 제안하고 있다. 뿌려지는 기본 교실의 유니트도 전체적으로 유동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모서리를 라운딩처리하여 구성하는 섬세함을 함께 제안하였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장려상인 <학교 가

로를 지나고 만나다, 전주산업단지 가로도제식학교>는 낙후된 산업단지의 가로의 변형이 학교와 같은 역할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가벽과 데크판을 이용한 입체적인 녹지 공간과 쉼터를 형성하고, 그사이에 복지, 판매, 전시 교육등의 프로그램 박스를 배열하여 지역의 산업단지와 매치된 도제식 직업이 가능한 학교를 제안한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장려상인 <눈높이를 맞추다, 사회의 흐름을 통한 교실디자인과 다문화교육공간 제안>은 농촌학교의 다문화현상에 대응하는 소통의 부채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문화차이를 공감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학교를 제안한다. 다문화교육공간을 위해서 간접적 다문화체험을 위한 미디어홀의 공간, 직접적 체험을 위한 마을 행사를 겸한 외부 체험 마당,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평생 교육공간 등을 형성하여 새로운 학교를 제시하였다.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장려상인 <낮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밤에는 별들이 쉬어서 간다>는 하늘마을 달동네의 마을구조를 연장한 아이들이 마을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교육받고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순환형 초등학교를 제안하였다. 시설이용자의 활동시간과 행태를 고려하여 24시간 잠들지 않는 순환학교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공간속에서 교육, 문화, 작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외 요번 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작품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단순히 형태적으로 멋있고 화려한 건축에 집중하지 않고, 사회와 도시, 지역에 대한 이해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형의 학교를 고민하는등 건강한 건축을 제안하려고 모두 애쓴 점에 찬사를 보낸다.

모든 작품이 훌륭했지만 입상한 작품들은 특히 학교 본질적 공간에 집중하며 그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의 고민을 높게 평가하였다. 학교의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공간적 모델로 발전시켰는가와 제안하는 학교의 새로운 시스템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축적 장치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다분히 혁신적인 작품들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다만 기존 학교의 틀을 깨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면밀성과 제안하는 교육시설의 새로운 공간적 구조의 탐구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또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수학 중인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미래의 가치를 여는 학교시설 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한 학교 공간 환경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공모전의 주제 _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미래를 여는 학교」

올 해 공모전 주제는 ‘미래를 여는 학교’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취학연령 아동의 감소, 구도심 정주인구의 급감, 다문화사회로의 전이, 정보화시대의 스마트교육환경의 대두 등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학교는 대응할 것인가? 이제 관습과 제도로서의 학교를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여는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에 대한 유쾌한 상상을 기대하며 이번 공모전의 학교 디자인은 아래의 네 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 1) 학령인구감소사회의 미래 교육환경과 학교 디자인
- 2) 안전한 학교, 안심마을 거점으로서의 학교 디자인
- 3)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교육환경으로서의 학교 디자인
- 4) 스마트교육환경으로서의 학교 디자인